

# 여성 재취업 고용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정 성 미\*

## I. 문제 제기

급속한 산업화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2005년에는 처음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넘어섰다.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추세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잠재인력의 흡수문제 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꾸준하게 증가하는 여성인력의 상당부분이 임시·일용직으로 흡수되어 고용의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바람을 타고 온 구조변화로 인하여 고용불안정성은 소외계층인 여성에서 심화되었고 이는 고용의 질이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인력은 결혼 및 육아 그리고 성차별 문제 등에 따라 경제활동 상태가 민감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노동력 공급자로서 갖은 경력 단절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때 더욱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취하기 마련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재취업 형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먼저 김교성(2005)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사건사 분석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와 고용형태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이 영향을 미쳤고 업종과 직종에 따라 고용형태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실업자의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smjung@kli.re.kr).

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그리고 재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발표한 바 있다. 강철화·유정아(2004)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재취업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결과에 따르면 이전직장 특성이 재취업자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직장이 비정규직일수록, 미취업기간이 길수록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다고 했으며 성별과 학력에 의해 낮은 고용의 질이 지속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안주엽(2001)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재취업자 고용형태를 분석하였는데 여성 및 비가구주일 경우 비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고학력자일수록 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의 「제3차 여성취업 실태조사 테이프(1997)」 자료를 이용한 박수미(2003)에 따르면 여성의 인적 특성은 재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출산, 결혼, 6세 미만 자녀양육기 등과 같은 생애사건은 재취업률을 유의미하게 낮췄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 이후 변화하는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재취업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재취업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년도(1998년)부터 제7차년도(2004년)까지 7년간의 자료이며 프로빗(probit model) 분석과 선택편의 프로빗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 II.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 1. 자료 및 주요변수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년도(1998년)부터 제7차년도(2004년)까지 7년간의 자료를 패널로 연결하여 취업과 미취업상태를 개인별로 모두 추적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재취업자의 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구성을 1998년 이후 실직을 경험한 후 다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분석대상의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이다. 재취업여부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과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미취업으로 구분되고, 재취업은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사용되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정의를 내리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독립변수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째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연령, 자녀<sup>2)</sup>,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주여부로 구성된다. 둘째는 노동시장 수요측면인 이전직장 변수로 임금,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 산업 및 직종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인 사회보험<sup>3)</sup> 수급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녀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재취업이 된 시점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과 변수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과 속성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재취업 여부	1=재취업, 0=미취업
		재취업 고용형태	1=비정규직, 0=정규직
독립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노동시장 공급측면)	연령	만 나이
		자녀	1=1~7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0=없는 경우
		혼인상태	미혼=기준범주, 1=유배우자, 2=무배우자
		교육수준	중졸 이하=기준범주, 1=고졸, 2=대졸 이상
		가구주인 여성	1=가구주, 0=비가구주
	이전 직장변수 (노동시장 수요측면)	임금	세금을 제한 월평균 임금
		고용형태	1=비정규직, 0=정규직
		사업체 규모	1=1~299인 중소기업, 0=300인 이상의 대기업
		산업	1=서비스업, 0=비서비스업
		직업	사무직=기준범주, 1=서비스직, 2=생산직
제도변수	사회보험 수급 여부	1=사회보험 수급함, 0=수급하지 않음	

- 1)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종사상 지위를 구분할 때 근로계약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고려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임시직 등의 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지침의 특성상 종사상 지위로 구분된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비정규근로자라기보다는 비정규근로자의 대우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임시·일용직에는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비정규근로자뿐 아니라 실재는 비정규근로자가 아니지만 비정규근로자로 오분류되어 비정규근로자로서 대우받는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안주엽, 2003).
- 2) 「한국노동패널조사」에는 1차년도만 초산시기와 자녀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를 이용하여 1차년도(1998년)를 기준으로 1~7세 아동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 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사회보험은 크게 ①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② 특수직역연금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반환일시금, ③ 산재보험인 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④ 보훈연금과 마지막으로 ⑤ 실업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 2. 재취업자 고용실태

외환위기 이후 실직을 경험한 뒤 재취업을 한 여성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전직장 특성 그리고 사회보험 수급여부 등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재취업한 여성은 408명으로 평균연령은 37.4세이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은 424명으로 평균연령이 41.8세로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의 평균연령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30대의 재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 재취업자의 27.0%를 차지했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약 17~19%의

<표 2> 기술통계량

		변수명	재취업 함(비중, %)	재취업 하지 않음(비중, %)	
		전 체	408 (100.0)	424 (100.0)	
인구통계학	연령	15~24세	70 ( 17.2)	47 ( 11.0)	
		25~29세	74 ( 18.1)	83 ( 19.6)	
		30~39세	110 ( 27.0)	78 ( 18.4)	
		40~49세	73 ( 19.8)	77 ( 18.2)	
		50세 이상	81 ( 19.8)	139 ( 32.8)	
		평균연령	37.4세	41.8세	
	혼인상태	미혼	144 ( 35.3)	75 ( 17.7)	
		유배우자	219 ( 53.7)	289 ( 68.2)	
		무배우자	451 ( 11.0)	60 ( 14.1)	
	특성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7 ( 33.6)	172 ( 40.6)
고졸			171 ( 41.9)	156 ( 36.8)	
대졸 이상			100 ( 24.5)	96 ( 22.6)	
		1~7세의 자녀가 있는 여성	42 ( 10.3)	52 ( 12.3)	
		가구주인 여성	75 ( 18.4)	83 ( 19.6)	
이전직장	임금	이전직장	61만원	66만원	
		고용형태	비정규직	162 ( 39.7)	185 ( 43.6)
	정규직		246 ( 60.3)	239 ( 56.4)	
	사업체	1~299인	99 ( 24.3)	93 ( 21.9)	
		300인 이상	309 ( 75.7)	331 ( 78.1)	
	산업	서비스업	270 ( 66.2)	282 ( 66.5)	
		비서비스업	138 ( 33.8)	142 ( 33.5)	
	특성	직업	사무직	103 ( 25.3)	95 ( 22.4)
			서비스직	124 ( 30.4)	126 ( 29.7)
			생산직	181 ( 44.4)	203 ( 47.9)
		사회보험 수급여부	33 ( 8.1)	51 ( 10.2)	

고른 비중을 보이는 반면,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의 32.8%가 50대 이상이며 30대는 18.4%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30대에서 재취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재취업한 여성의 35.3%가 미혼이고 기혼 중 유배우자가 53.7%, 무배우자가 11.0%의 비율을 보인 반면,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의 미혼은 17.7%, 기혼은 82.3%의 비중을 보여 미혼이 재취업을 하기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재취업자 중 고졸이 41.9%로 가장 많은 반면,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은 중졸 이하가 40.6%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취업을 한 여성 중 10.3%가 1~7세 자녀가 있는 반면,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은 12.3%가 1~7세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인 여성의 비중을 살펴보면, 재취업을 한 여성의 18.4%가 가구주이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의 19.6%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전직장 특성을 살펴보면, 재취업을 한 여성의 이전직장 임금은 61만원인 반면,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의 이전직장 임금은 66만원으로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의 이전직장 임금이 약 5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이전직장 고용형태를 보면, 재취업을 한 여성의 39.7%가 비정규직이었고 60.3%가 정규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의 43.6%가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은 56.4%인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근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직장 사업체 규모를 1~299인 기업과 300인 이상의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재취업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모두 1~299인 기업이 약 22~24%의 비중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두 그룹 모두 300인 이상 기업에 75%가 넘는 근로자가 종사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변수인 사회보험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재취업을 한 여성 중 8.1%가 사회보험 수급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은 10.2%가 사회보험 수급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재취업과 고용형태의 결정요인

#### 1. 분석방법

실증분석 방법은 프로빗 분석(probit model)을 이용하였다. 프로빗 분석은 종속변수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이며 범주형일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비선형 모델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이다. 본 분석에서는 재취업 여부와 재취업자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 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설명변수의 평균값을 산입하여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추정하였다<sup>4)</sup>. 또한 재취업 고용형태 결정요인에서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종속변수와 표본선택 편의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추정계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선택편의를 포함한 프로빗 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선택편의를 포함한 프로빗 모형에서는 이항종속변수로 구성된 두 개의 방정식을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첫번째 모형은 재취업 여부식에 해당하며 두번째 모형은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게 된다. 두 모형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_1^* = Z_1\gamma + u_1 \quad (1)$$

$$y_2^* = X_i\beta + u_2 \quad (2)$$

$$\text{corr}(u_1, u_2) = \rho$$

여기서 식 (1)은 실직을 경험한 여성이 재취업을 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식 (2)는 여성 재취업자 중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정식이다. 식 (2)는  $y_1^* > 0$ 인 경우만 관찰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된다. 최대우도추정법을 위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 = \sum_{i \in S}^{y_i=1} \ln [\Phi_1(X_i\beta, Z_i\gamma, \rho)] + \sum_{i \in S}^{y_i=0} \ln [\Phi_1(-X_i\beta, Z_i\gamma, \rho)] + \sum_{i \notin S} \ln [1 - \Phi_2(Z_i\gamma)]$$

여기서  $S$ 는  $y_2^*$ 에서 관찰된 표본을 의미하며,  $\Phi_1$ 는 누적 이항정규분포이고  $\Phi_2$ 는 표준 누적정규분포이다.

## 2. 재취업 여부 결정요인 분석

외환위기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가 실직후 다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고자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이 <표 3>으로 종속변수는 재취업 여부이다. 분석결과

4) 프로빗 분석은 비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계수값을 직접적으로 한계효과로 해석할 수 없다. 본 모형의 한계효과는 각 설명변수의 평균에서 기울기를 계산한 값이다(Green, 200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연령, 연령제곱, 자녀, 유배우자, 무배우자, 가구주, 이전직장 임금과 이전직장 사업체 규모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변수는 재취업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취업할 가능성이 6.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제곱 변수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평균 근로자는 약 30세까지는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다가 이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1~7세의 자녀가 있을수록 재취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육아부담으로 인해 재취업에 부(-)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한계효과로 보면 1~7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11.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변수는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모두 미혼에 비해 재취업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에 비해 유배우자는 35.0%, 무배우자는 31.6%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 중졸 이하에 비해 재취업이 어렵다고 나와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비가구주인 경우에 비하여 11.9% 더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가구주가 생계를 부양해야 한다는

<표 3> 재취업 여부에 대한 프로빗 분석결과

변 수	추정계수	p-값	한계효과
연령	0.152	0.000***	0.061
연령제곱	-0.002	0.000***	-0.001
자녀	-0.282	0.072*	-0.111
유배우자	-0.908	0.000***	-0.350
무배우자	-0.872	0.001***	-0.316
고졸	-0.052	0.731	-0.021
대졸 이상	-0.157	0.405	-0.062
가구주	0.300	0.059*	0.119
이전직장 임금	-0.258	0.003***	-0.103
이전직장 고용형태	-0.121	0.256	-0.048
이전직장 사업체 규모	-0.373	0.002***	-0.146
사회보험	0.101	0.548	0.040
서비스 산업	-0.032	0.790	-0.013
서비스 직종	0.057	0.695	0.023
생산직 직종	0.016	0.914	0.006
상수항	-1.010	0.120	
로그우도함수	-514.6		
전체 표본수	811		

주: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부터 제7차년도. 원자료.

책임감으로 비가구주에 비해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전직장 변수를 살펴보면, 이전직장 임금이 높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10.3%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비정규직이었던 여성은 재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이전직장 임금수준이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전직장 고용형태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전직장의 사업체 규모는 재취업에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전직장 사업체 규모가 1~299인 기업일수록 3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14.6% 재취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직장 변수 중 산업의 경우 서비스업일수록 재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게 나타났고, 직종 중 서비스직과 생산직일수록 사무직에 비해 재취업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을 수급할수록 재취업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3. 재취업 고용형태 결정요인 분석

<표 4>는 재취업 고용형태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로는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이고 <표 4>의 변수들이 독립변수이다. 분석결과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학력변수, 이전직장 고용형태, 사회보험에서 나타났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자녀와 혼인상태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중졸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22.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과정이 다소 선택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이전직장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이전직장 임금이 높을수록, 이전직장 사업체 규모가 1~299인일수록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 변수들이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전직장 고용형태와 사회보험 수급 여부는 재취업 형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27.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직장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직장을 가진 여성이 다시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장을 가진 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는 다시 안정성이 낮은 직장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보험소득 경험이 있을 경우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2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험의 혜택이 보다 나은 고용형태의 선택기회를 제공하며 정규직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이전직장의 산업 및 직종의 경우 재취업 여부와 마찬가지로 재취업 고용형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재취업 고용형태에 대한 프로빗 분석결과

변 수	추정계수	p-값	한계효과
연령	0.052	0.292	0.020
연령제곱	-0.000	0.415	-0.000
자녀	-0.061	0.809	-0.024
유배우자	0.095	0.741	0.037
무배우자	0.444	0.270	0.176
고졸	-0.255	0.229	-0.099
대졸 이상	-0.595	0.033**	-0.221
가구주	-0.184	0.399	-0.071
이전직장 임금	0.118	0.392	0.046
이전직장 고용형태	0.706	0.000***	0.274
이전직장 사업체 규모	0.048	0.817	0.019
사회보험	-0.625	0.023**	-0.223
서비스 산업	-0.054	0.767	-0.021
서비스 직종	0.028	0.898	0.011
생산직 직종	-0.104	0.619	-0.041
상수항	-1.186	0.066*	
로그우도함수	-231.5		
전체 표본수	395		

주: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부터 제7차년도. 원자료.

#### 4. 선택편의를 포함한 재취업 고용형태 영향요인 분석

재취업을 한 여성에서 선택편의를 제거한 고용형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재취업 고용형태에 선택편의를 포함하여 프로빗 모형을 활용한 결과가 <표 5>이다. <표 4>에서 재취업 고용형태를 분석할 때 재취업을 한 여성근로자만 분석하여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의 특성을 제거한 채 추정하였기 때문에 자료에 편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여겨져 이러한 편의를 없애고자 선택편의를 포함한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선택편의 프로빗 모형에서 재취업 여부(선택식)에는 영향을 미치나 고용형태에는 영향을

<표 5> 재취업 고용형태 결정요인(선택편의를 포함한 프로빗 모형)

변 수	재취업 고용형태		재취업(선택식)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연령	0.064	0.088*	0.152	0.000***
연령제곱	-0.000	0.246	-0.002	0.000***
자녀	-0.071	0.498	-0.281	0.072*
유배우자			-0.907	0.000***
무배우자			-0.882	0.001***
고졸	-0.249	0.237	-0.051	0.738
대졸 이상	-0.595	0.030**	-0.156	0.408
가구주			0.306	0.055*
이전직장 임금	0.099	0.493	-0.258	0.003***
이전직장 고용형태	0.711	0.000***	-0.120	0.259
이전직장 사업체 규모	0.123	0.957	-0.373	0.002***
사회보험	-0.570	0.035**	0.101	0.548
서비스 산업	-0.045	0.802	-0.032	0.789
서비스 직종	0.025	0.911	0.059	0.686
생산직 직종	-0.109	0.601	0.019	0.898
상수항	-2.145	0.020**	-1.008	0.120
$\rho$	0.134	0.558		
로그우도함수	-746.8			
전체 표본수	811			

주: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부터 제7차년도. 원자료.

미치지 않는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의 모형들의 분석결과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재취업 고용형태(종속변수는 비정규직)에는 연령, 학력(대졸 이상), 이전직장 고용형태, 사회보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선택편의를 포함하지 않은 <표 4>에서는 연령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미약한 효과를 보였으나 <표 5>에서 선택식(재취업 여부)의 선택편의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연령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전 연구결과(안주엽, 2001)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학력(대졸 이상)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수급을 할수록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전직장에서 비정규직이었으면 다시 비정규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앞의 모형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변수들이 재취업 고용형태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재취업과 고용형태 결정요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이전직장 직종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은 미약하지만 사무직종에 비해 서비스직종일수록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자녀와 이전직장 임금 그리고 이전직장 사업체 규모 등의 변수는 재취업한 직장의 고용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 IV. 결론

최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현상과 더불어 여성인력의 결혼 및 육아 그리고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을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부분으로 몰리게 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의 여성 재취업과 재취업자의 고용의 질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7개년 자료를 패널로 연결하여 취업과 미취업 상태를 개인별로 모두 추적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또한 재취업자들의 선택편의를 제거하지 않고 고용형태 결정요인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했다는 것과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자녀 변수를 이용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먼저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재취업이 잘되지만 약 3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재취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고,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을수록, 미혼에 비해 기혼이, 이전직장 임금이 높을수록, 이전직장 사업체 규모가 1~299인 일수록 재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이 가구주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험 수급과 같은 제도적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재취업 고용형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이전직장 형태가 비정규직일수록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대졸 이상일수록, 사회보험을 받을수록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영유아기의 자녀,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등의 인적 특성과 이전직장 특성인 사업체 규모와 임금이고 제도적 특성인 사회보험의 수급여부는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려면 연령, 학력과 이전직장 고용형태 그리고 사회보험의 수급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재취업과 재취업형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의 제한점을 갖고 있는데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경우만 사용함에 따라 1차년도(1998년)에만 있는 자녀 변수를 사용하였고, 2차년도부터의 신규 진입자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충하여 보다 엄밀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KLI**

### <참고문헌>

- 강철희·유정아(2004), 「재취업자의 고용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1호.
- 김교성(2005),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사건사 분석」,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박수미(2003), 「한국여성들의 두번째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여성학』, 제19권 제1호.
- 안주엽 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I)」, 한국노동연구원.
- 이시균·김정우(2005),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결정요인 분석」, 노동리뷰, 통권 제10호.
- 주미영(2000), 「프로핏과 순차적 프로핏 분석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부학연구』, 제6권 제1호.